

농어촌공사 강원본부, 예산 조기 집행으로 농가 지원 효율화

[이우정]

[한국농어민신문 이우정 기자]



한국농어민신문

김명일 한국농어촌공사 강원본부장.

최근 김명일 한국농어촌공사 강원본부장은 공정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고, 농지은행 사업 예산 조기 집행 등을 통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농가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 강원본부는 지역 사회단체 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농어민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계획이며 지난해보다 170억원 늘어난 영업수익 2,144억원 달성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강원본부는 농업용수 수질관리 강화로 안전한 식량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농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생산과 환경을 개선하며 농업용수 관리는 수요자 맞춤형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춘천과 홍천에 다목적농촌용수개발에 579억원을 투자하며, 철원에는 10억원을 투자해 뚝방을 설치하고 585억원을 들여 배수개선사업 8곳을 추진한다.

또한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농업 재난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홍수 예보경보시스템을 상용

화하고, 스마트재해예방계측사업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산학교류 확대를 통한 지역 전문인력을 양성 방안으로 올해 강원대학교 지역건설공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장 견학을 실시했으며, 강원연구원과 업무협약을 통해 맞춤형 농촌지역 발전방안을 추진하는 등 지역 단체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명일 강원본부장은 “농어촌공사의 가장 기본적이고 원천적인 업무는 농지관리와 농업용수 공급을 통해 농업인들의 경영 위기관리 등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고 전했다.

춘천=이우정 기자 leewj@agrinet.co.kr